

개학 연기에 대입 일정 조정도 검토 코로나19 확산 여파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 연기가 한 달 이상 장기화되면서 올해 대입 일정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계에서는 각 대학의 대입 전형일을 조정하는 방법부터 아예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뒤로 미루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대입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열린 추가 개학 연기 브리핑에서 대입 일정 변경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일정에 관해 처음 개학이 연기된 순간부터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학사 일정이나 입시 일정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왔다"며 "광장히 예민한 문제라 분명하고 확실한 일정이 나오면 공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학 연기로 가장 난처한 상황에 놓인 건 고3 수험생들이다. 수능을 앞두고 수업 결손으로 발생하는 학력 공백을 메워야 하는 동시에 변동되는 대입 일정에 맞게 입시나 진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고3 수험생들 대부분이 응시하는 각 시·도교육청의 '전국연합학력평가'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평가' 등 각종 시험 일정도 줄줄이 변경

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당초 3월19일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개학연기로 인해 4월2일로 미뤄졌다.

개학이 2주 더 연기되면서 시험은 4월 말쯤으로 한 차례 더 늦춰질 게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역시 한 차례 연기돼 4월28일로 예정된 경기도교육청의 전국연합학력평가는 5월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 그해 치러지는 수능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평가원의 6월 모의평가도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입시업체들은 개학연기로 학사 일정 등이 변경되면서 상대적으로 수능에만 신경 쓰면 되는 'N수생'들이 입시에서 더 유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수능이 연기될 경우 이에 따른 대입 정시전형 일정의 동반 변경, 뒤따르는 대학별 고사 일정 변경 등 대입 일정의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수시전형 일정의 변경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우선 중간고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시모집에서 중요한 전형요소의 하나인 학생부의 작성 기준일자가 8월31일인데 이 일정을 지키기가 쉽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고가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 보유세 폭탄 현실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5.99% 오른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의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날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채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 안을 토대로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29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5.99%로, 지난해(5.23%)보다 0.76%포인트(p)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전국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과 대전, 세종, 경기 등이 상승했다. 서울의 공시가격이 14.75%로 가장 많이 올랐고, 대전도 14.06%로 두 자릿수 오름 폭을 보이며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세종(5.78%)과 경기(2.7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 중에서는 집값 상승폭이 컸던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45%) 등 강남3구 상승률이 두드러졌고, 마포구

(12.31%), 용산구(14.51%), 성동구(16.25%)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도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 공시가격은 고가주택일수록 상승 폭이 더 컸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 원(시세 12억 원 정도) 초과 아파트는 전국 기준 지난해 21만 8,100여 가구에서 올해 30만 9,300여 가구로 9만여 가구가 증가했다.

이중 서울만 놓고 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이 20만 3,000여 가구에서 올해 28만 800여 가구로 7만 7,000가구 증가했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 252만 7,800여 가구 중 11.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올해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름에 따라 이에 근거해 부과되는 보유세도 적잖이 상승할 전망이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관련 부가세,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때문에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의 복지행정과 재건축 부담금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